

“ 다르지 않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



식용개가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상북도 한 야산에서 누렁이 20여 마리가 땅바닥 한 번 밟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용으로 팔기 위해 누렁이들을 키르기 시작한 주인이 돌보기를 게을리 하기 시작했고, 결국 굶주림에 시달려 바짝 아위고 병에 걸린 이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와 형제들의 사체가 채 치워지지도 않은 좁은 철장에서, 굶주림에 지친 누렁이들을 기다리는 건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네 주민의 제보로 이러한 사실이 TV동물농장에 방영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동물자유연대가 이 누렁이들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큰 덩치에, 화려하지도 양증맞지도 않은 외모... 사람들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 태어난 '식용개' 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없습니다. '식용개' 라 불리는 이 개들도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주인을 보면 반가워 꼬리를 흔들고, 돌보는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똑같은 '사랑스러운 개' 입니다. 굳이 다름이 있다면 이들을 구분 짓는 '사람들의 마음' 입니다.

갈증과 배고픔, 질병과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20마리의 누렁이들 대다수는 이들을 '가족' 으로 품어준 가정에서 여느 반려동물처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마리도 동물자유연대의 품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없는 실천.
모든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등록법인이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학대의 방지와 구조,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동물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사회현장 고발 및 인식제고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Homepage www.animals.or.kr | Twitter @animalkorea

후원계좌

국민은행 : 806201-04-005468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농협 : 015-17-002592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개식용 합법화는 공장식 축산업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일부에서는 잔혹한 도살 방법과 비위생적 사육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장식 축산업의 확장이라는 더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공장식 축산업은 ①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발생 억제를 위한 항생제 과다 사용 ② 단기간 몸 불리기를 위한 성장촉진제 사용 ③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으로 인한 대량 살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우려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소와 닭, 돼지 등의 수많은 농장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을 반대하고, 동물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형 축산을 지향하며, 더불어 개식용 반대 활동을 통해 공장식 축산업이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간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얻기 위해,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너무나 많은 동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동물의 이용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먹을거리가 충분해진 요즘은 일상적인 식단으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날마다 고기를 쟁겨먹는 식습관에서 벗어나 과도한 육류 섭취를 자제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을 통해 불필요하게 희생당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문화 :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인도적 소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 문화도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맛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한 것은 물론 소비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용이 아닌 인도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담고자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전통이나 문화로 인식되었던 음식들이 잔인한 생산 공정을 이유로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이유로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된 대표적인 음식들

푸아그라(Fois Gras)

거위나 오리 등의 간으로 '강제로 먹이기(Force Feeding)' 를 통해 생산 영국, 독일, 시카고, 캘리포니아(2012년 7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6개 주,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생산이나 유통, 판매 금지

삭스핀(Shark's Fin)

상어지느러미를 말린 것. 상어를 포획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바다에 버림 토론토,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곤, 워싱턴, 일리노이, 뉴욕(2013년) 등에서 유통 및 판매 금지. 중국에서도 3년 내에 공무원의 접대메뉴로 삭스핀 소비하는 것 금지 법안 마련

개고기

개를 도축해 얻으며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소비 토론토,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



식용으로 희생 당하는 개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



- 좁은 공간에 갇혀 찍어내듯 태어나고, 사육 당합니다. 개는 활동성이 많은 동물로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 오염된 음식찌꺼기를 먹으며 살 찌워집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오염된 음식으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다량의 항생제를 맞게 됩니다. 이는 이미 합법화된 가축들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 태어난 지 겨우 1년, 식용으로 위해 도살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싸움을 방지하고, 운송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짐짝처럼 겹겹이 실려 가게 됩니다.
-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 나가 전기 감전 후 도살당합니다. 전기 감전은 1차적으로는 기절 상태를 만드는데, 이 후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털 뽑는 기계에 넣기도 합니다.

개 사육과 도살의 비인도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부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늑대, 코요테가 조상인 개는 기본적으로 공격성과 민첩함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심각한 학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개 도살의 합법화는 학대 방지 대안이 아닌, 더 많은 동물들에 대한 잔혹한 학대의 연장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 도살 및 공장식 축산업으로 동물들이 고통받고 희생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윤인선 작가님께서 그림을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 도살 및 공장식 축산업으로 동물들이 고통받고 희생되는 것을 반대합니다.